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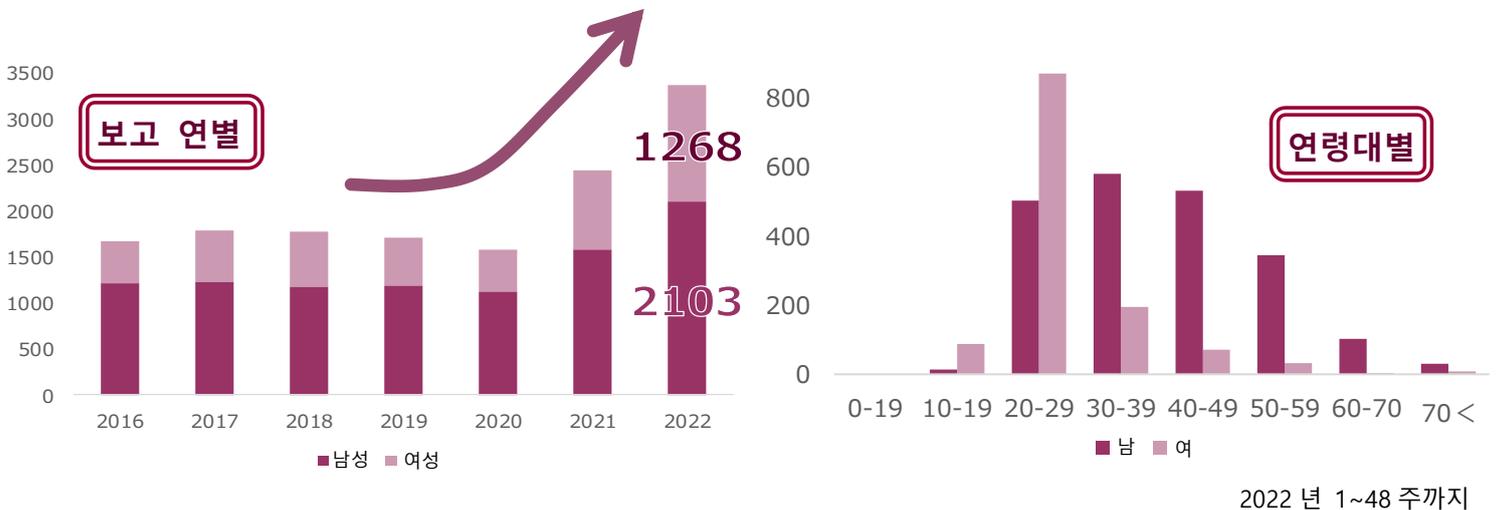
# 매독,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

## 어떤 병인가요?

매독 트레포네마에 의한 감염증입니다. 성관계 시 점막이나 피부의 작은 상처를 통해 감염됩니다. 거의 증상이 없이 지나가므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병세가 진행되고 타인에게 감염시키게 됩니다. 감염 후 약 1개월이 지나면 감염된 곳(성기, 항문, 입 등)에 발진이나 멍울 등이 생기는데 치료하지 않아도 수주 만에 증상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호전됩니다. 그러나 병은 조용히 진행되어 수년~수십년 후 심장, 혈관, 신경에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실명, 치매와 같은 증상이 발현하기도 합니다.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이 매독에 걸리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감염되어 사산, 조산, 신생아 사망, 선천성 장애(선천성 매독)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##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?

2016~2020 년은 연간 1,700 건 전후의 추이를 보였으나 2022 년은 48 주까지의 기간 동안 그 두 배인 약 3,400 건이 보고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.



## 어떻게 감염되나요?

성관계 시 병원체를 포함한 분비액(정액, 질 분비액 등), 혈액 등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점막이나 상처를 통해 감염됩니다. 매독은 몇 번이고 감염될 수 있으며 본인도 모르게 타인을 감염시킵니다.

## 어떻게 예방하나요?

올바른 콘돔 사용이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. 구강 성교(오럴 섹스), 항문 성교(애널 섹스)로도 감염됩니다.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올바른 콘돔 사용이 중요합니다. 걱정된다면 검사를 받으십시오.

## 매독 Q&A

### Q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나요?

**A** 매독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거나 피부에 증상은 있지만 통증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치료하지 않아도 증상은 사라질 수 있으나 저절로 낫지는 않으므로 항생제를 통한 치료가 필요합니다. 내복약은 1회 복용 정제 수가 많으며 내복 기간이 깁니다. 현재는 페니실린 근육주사가 인가되어 약 복용 이외의 선택지도 있습니다. 감염 사실을 안 후 단계가 이르면 1회 주사로 치료가 완료되므로 약보다 손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.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신경이나 심장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조기 검사 및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.

### Q 한번 감염되면 재감염은 안 되나요?

**A** 매독 감염은 의사가 검사를 통해 혈액 중의 항체 등을 확인한 후 판단합니다. 감염된 사람의 혈액에는 일정한 항체가 있지만 재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따라서 적절한 예방(콘돔 사용, 파트너의 치료 등)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매독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### Q 콘돔을 사용하면 감염이 안 되나요?

**A** 감염된 부분에 점막이나 피부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콘돔을 사용하는 것은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단, 콘돔으로 덮이지 않은 피부를 통해서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콘돔을 사용해도 100% 예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증상이 없어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를 받도록 합시다.

### Q 검사는 가능한가요?

**A**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십시오. 도내 보건소와 도 검사실에서는 익명으로 HIV나 매독을 무료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다른 성 감염증(임균, 클라미디아 감염증)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도 있습니다. 매독 검사는 혈액 채취를 통해 실시합니다.

### Q 매독 감염이 걱정됩니다.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?

**A** 거주하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. 또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